

제작결합·안전불감... 불안 키운 '모험 운행'

호남선KTX 잇단 사고 왜?

호남선 KTX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고속열차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결합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300km가 넘게 달리는 열차를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의 안전 의식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5일 호남선 KTX의 '청테이프 운행' <광주일보 4월 3일자 1면>과 관련, 차량제작사가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라 빚어진 '제작 결합'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작사인 현대로템(주)이 고정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접착제를 발라 완성해야 되는 규격을 지키지 않고 접착제를 누락한 채 차량을 제작해 발생한 결합이라는 게 코레일측 설명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300km 넘게 달리는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곳곳 점검·관리 소홀 드러나

잠금장치 파손된 채 배정운행

정차·지연 이유도 오락가락

사전에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4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인근 다리 위에서 KTX 511호 열차가 3분 가량 멈춰선 사고도 '제작 결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운행 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도 거세다.

고속철 운행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미흡한 안전 의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발생한 '청테이프 운행 사고'의 경우 KTX는 당일 낮 12시32분께 워셔액 주입구(점검커버) 잠금장치가 파손됐

음에도,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했다.

당시 직원들은 광명역을 지나 오송역으로 향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기도 화성시 인근에서 임시 정차해 7분54초 동안 점검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운전할 수 있으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차량관리원이 배치된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한다'는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내세워 오송역까지 갔지만 여기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 공주역을 지나 익산역까지 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오송역의 경우 차량 제작사측 정비 직원을 만나지 못해 기다릴 수 없었고, 나머지 역에서는 정비 담당 직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코레일측 해명이다. 그나마 익산역에서도 차량 정비 직원은 정테이프 봉합하는 임시방편 대책으로 수습하려 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측의 '괜찮겠지'

라는 안이함과 수익에만 급급, 기차·열차 탑승·승무원 등 단 3명에게 열차 운행을 맡긴 미흡한 안전 의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운행 초기부터 목포역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에게 사고 상황 및 지연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해 승객들의 반발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코레일측은 '신호대기', '운전 장애로 인한 정차 뒤 점검' 등의 안내방송을 했다. '장애물 충돌', '열차 하부 충격 감지' 등 정차 이유를 달리 설명하면서 승객 불안감을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작 결합, 안전 의식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푸른길 공원 음식점 신축 불허는 정당

광주고법 땅 소유주 항소 기각, 남구청 승소 판결

도심 속 '녹색 워터'로 자리잡은 푸른길 공원에 음식점 신축을 불허한 광주 남구청 결정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정이 내려졌다. 하루 1만명이 넘는 시민 휴식공간이 상업화에 물드는 것을 우려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의 '푸른길 공원 지키기' 활동도 한층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5일 광주 남구청 푸른길 공원 내 사유지 소유주 A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 부지가 푸른길 공원을 관통하는 곳에 위치, 건축물 신축으로 교통 체증 심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점, 공공복리증진 등을 감안한 행정기관의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변 지역 토지 이용 실태·계획,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푸른길 공원 내 가설건축물 부지 사용이라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남구는 푸른길 공원 내 토지 소유주가 음식점 신축을 추진하자 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동아리 MT 참석 여대생

구례 리조트서 추락 숨져

대학 동아리 선·후배들과 MT에 참석한 여대생이 리조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5일 오전 2시40분께 구례군 산동면 한 리조트 건물 5층 객실에서 고모(21·여)씨가 1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광주 모 대학에 재학 중인 고씨는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단과대학 6개 동아리 170여 명과 함께 모임을 참석했으며, 당시 고씨는 객실에서 소속 동아리 선·후배 1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방에 들어가 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객실 베란다로 나가 휴식을 취하던 중 1m10cm 높이의 난간을 넘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지난 2월23일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한 고(故) 이승현(단원고 2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와 딸 아름 양이 5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광주 시민상주모임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20여명과 함께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서구청 염산 협박 50대

광주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구청에 염산을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과 13일 광주 서구청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염산을 주변 바닥에 뿌리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진실을 인양하라"... 세월호 삼보일배 광주도착

故 이승현군 아버지·동생 팽목항 출발 42일째 고행길

"이 나라는 1년을 허비했습니다.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 세월호 삼보일배 유가족 부녀(女)가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고행길에 나선지도 꼬박 42일째다.

진실 규명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지난 2월23일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한 고(故) 이승현(단원고 2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와 딸 아름 양은 5일 광주 남구 창조주유소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 촉구 팽목항~광

화문 삼보일배' 광주일정에 나섰다.

겉게 그을린 피부와 무릎과 허리, 핏물이 맺힌 발바닥에선 고통이 밀려오는 듯 험겨운 발걸음을 떼는 승현아빠 이호진씨는 시민들을 향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가라앉은 순간부터 시간은 흐르지 않고 멈춰있다고 설명했다. 그토록 원하던 진실 규명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정부는 국민의 비웃음을 산 해경 해체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는 것이다. 또 선체 인양을 통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없는 한 세월호 재판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씨는 "차가운 바닷속 아이들의 원성이 아직도 멈추지 않은 만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진씨 부녀는 남광주역을 지나 조선대 정문, 동구청 앞 교차로, 5·18 민주광장, 한미소방 사거리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한 뒤 6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마지막으로 광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중흥건설 자금 담당 부사장 구속

검찰 비자금 의혹 수사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중흥건설 자금 담당 간부를 구속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3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중흥건설 자금담당 경리부사장 A(5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A씨 구속을 계기로 향후 수사 방향도 책임자인 건설사 총수를 향한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대표이사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중흥건설의 지역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향후 검찰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100억원대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1000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 등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거스름 돈 300원 달라"...만취 소동 40대 수습배 벌금 물 판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경찰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술김에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입건.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장모(45)씨는 지난 3일 밤 9시40분께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급호지구대를 찾아가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사무실에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여 동

안 음주 소란을 피운 혐의.

○...장씨는 이날 택시요금 명목으로 내던진 3000원을 택시기사가 들고 가자 "실제 요금은 2700원이다. 거스름돈 300원 돌려달라"며 고성을 지르며 말쑽을 부리다가 결국엔 경범죄 처벌법(관공서 주취 소란)을 어긴 혐의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처지.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매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차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9000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 (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